

지역 소식통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정읍시는 지난 31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정읍시와 정읍경찰서가 합동 실시한 이번 안전교육은 '안전한 포획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 지침, 사례 등을 설명했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인명피해, 로드킬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라 멧돼지 포획을 통해 확산을 차단해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 예방 등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붉은노을축제, 체험 부스 운영자 공개모집

부안군대표축제공찬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10월 13일~15일까지 3일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며, 부안군청 관광과 축제팀(부안읍 당산로 91, 4층 관광과)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 체험부스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부안군 내 단체, 동호회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체험부스는 8개 이내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부안과 노을의 정체성을 담은 부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부안노을축제 홈페이지(www.부안붉은노을축제.com)서 관련 서류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지 표명

부안군,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참석

부안군은 지난 30일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행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234개(광역 17, 기초 217) 지자체가 동참 하여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의지를 표명하는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은 세계 최대 기후 적응행사인 2023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이 개최되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환경부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회장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KA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주관했다.

이 행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의 개



회사 지방정부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의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의 취지 설명, 18개 지자체 단체장 공동 실천 선언문 낭독, 234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 동참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약 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 사업 추진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선언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반증이며, 기후위기는 이미 환경문제를 넘어선 경제문제로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은 각 지자체가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적응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도록 온 힘을 다하자"며 기후적응 선언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한편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소생산 및 연료전지 실증단지 구축, 수소 저상버스와 소형 모빌리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기후 위기 대응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34회 정읍사문화제' 준비 착수

음식·간식·체험·농특산물판매장... 13일까지 부스 운영자 모집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펼쳐지는 '제34회 정읍사문화제'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정읍시는 제34회 정읍사문화제와 함께할 부스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34회 정읍사문화제는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읍시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부스를 운영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음식부스 3개소 △간식부스 10개소 △체험부스 5개소 △농특산물판매장 6개소 등이다.

단, 체험, 농특산물부스 운영자는 먹거리를 판매할 수 없고 정읍에서 생산·가공되지 않은 농특산물과 수입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정읍시 내 단체, 마을, 업체, 개인사업자 등이며 단체 및 마을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할 가능하다.

부스운영자 선정은 9월 19일 (사)정읍사문화제제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문화예술팀(☎539-5175), 정읍사문화제 제정위원회 사무실(☎532-8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내년 국가예산 확보위해 국회 공략

지역 현안해결·국가예산 최대액 확보 나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해결과 내년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에 나섰다.

지난 31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윤준병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갖고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유네스코 세

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176억원)'과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200억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무, 배추, 고추 등 김치 원료 최대 생산자인 고창의 강점을 살린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00억원)'과 무장면 삼습 침수 지역인 '육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87억원)'에 지원을 호소했다.

끝으로 공음면과 대신면에 이르는 '균유·대장 하수관로 정비사업(121억원)', 신태면 '월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52억원)', 공공폐수처리 시설 국고보조사업(40억)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오늘부터 다시 국회 방문에 온 힘을 쏟아 국가예산을 최대치로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식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국제로터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서해, 해당화, 부안, 변산)로터리 클럽(특별대표 이종권)은 지난 31일 오후 2시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및 여행보험 그리고 현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58세대 217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77명 총 24명이 선정되어 고향 방문의 기쁨을 같이하게 되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1세는 "결혼한지 9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가 6살이 되도록 고향에 가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도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이 가족 간 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사는 삶의 모티브가 되는 소중한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서로 다른 빛깔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다양성이 존중받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민회 창립 34주년 기념식·가족한마당대회 개최

정읍시농민회(회장 황양택)는 지난 30일 신태인실내체육관에서 창립34주년 기념식 및 가족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가족한마당대회는 어려운 농촌환경 극복과 농민회 회원들간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수 시장을 비롯한 전농회장, 시·도의회 의원, 지역농협장 및 농업인단체 등의 내외빈과 농민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의 대회사, 축사 연대사 결



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후 체육행사, 노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이어졌다.

황양택 회장은 "기후위기 재난으로 농민들에게 더욱 힘든 한해였지만 농민들이 대동단결해 무차별 농산물 수입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시수하자"고 말했다.

이화수 시장은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농민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지금 어려운 농업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농민회 여러분이 앞장서달라"며 "시에 서도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흑명나방 등 벼 병해충 종합방제 당부

고창군이 최근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벼 비래해충 합동예찰을 추진한 결과 흑명나방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농가에 신속한 추가 방제를 당부했다.

흑명나방은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피해 잎이 1~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발생량이 많을 때는 7~10일 간격으로 2~3회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흑명나방은 6월 중순에서 7월 상순 경에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발생하며, 온도가 높고 비가 적을 때 발생량이 많다.

흑명나방 유충은 벼 잎을 길게 원통형으로 말고 그 속에서 잎을 갉아 먹으며 피해를 받은 잎은 표피만 남아 백색으로 변한다.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되어 논 전체의 벼 잎이 하얗게 되며, 출수가 불량하며 등숙도 지연된다.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이 뿌린 논이나 늦게 이앙한 논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기므로 비료를 과다하게 주지 말고 민생종 재배 농가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